

영향력 커진 유튜버 영상리뷰... 말 한마디에 식품가 '들썩'

유튜버 후기 소비자 구매 직결
긍정적 후기 단기간에 매출 폭증
조작·무허가 촬영 등 부작용도

식품외식업계에 부는 유튜버들의 입김이 날이 강해지고 있다. 유튜버의 긍정적인 리뷰에 제품 판매량이 급증하는가 하면, 부정적인 리뷰에 식당이 폐업하기도 한다.

6월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가 늘어나면서, 유튜버의 리뷰 영상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온라인 채널 특성상 실제로 제품을 보고 구매할 수 없어 유튜버의 리뷰 및 홍보에 의존하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텍스트보다 영상에 익숙한 MZ세대의 경우 영상을 통한 시각·청각적 후기를 신뢰하고 이는 소비로 이어진다. 실제로 약 113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참피디가 마켓컬리 '닭염통양념꼬치'를 리뷰한 뒤 1주일 만에 매출이 전주 대비 633% 증가했다.



인기 유튜버들과 협업하는 식품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왼쪽부터) 뽕송국 '매드몬스터' 뮤직비디오, 김해준 뚜레쥬르 제품 먹방 ASMR 화면



/유튜버 갈무리

올비맥주는 유튜버와의 협업을 활용하는 기업 중 하나다. 올비맥주 필곳은 인기 유튜버 '발명! 쓰레기걸'과 함께 제작한 '부자되라구' 게임카드를 선보였다. 해당 굿즈 제작을 다룬 영상은 103만뷰를 달성했다.

지난 4월에는 채널 '뽕송국'에서 공개한 그룹 매드몬스터의 '내루돌프' 공식 뮤직비디오를 통해 최근 리뷰열한 '카스'를 선보였다. 해당 영상 조회수는 약 2달 만에 700만뷰를 넘겼다.

업계 관계자는 "뽕송국의 이창호와 피식대학의 김해준은 최근 업계 성공공식으로 통한다. 올리지만 하면 거부감

없이 조회수가 수십, 수백만을 찍기 때문"이라면서 "유튜브 협업을 하려면 내년 초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기업들은 유튜버와 함께 신제품을 개발하는가하면 '굿즈'를 내놓기도 한다. 최근 프레스지는 13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박막레 할머니'의 레시피를 담은 '박막레 비빔국수' 밀키트 2종을 출시했다.

이번 출시 제품은 박막레 할머니의 유튜브 채널에서 누적 합산 약 1500만 조회수를 기록한 비빔국수 만들기 영상의 레시피를 그대로 구현해 낸 제품이다.

지난 28일에는 제품 출시 전 박막레 할머니가 프레스지 생산시설에 방문해 제품 개발과정에 참여하는 모습을 담은 티저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어 하루

만에 3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롯데제과는 온라인 몰에서 217만 구독자를 보유한 '흔한남매' 컬래버 제품을 연이어 출시했다. 지난해 3월 첫선을 보인 '롯데제과×흔한남매 과자선물세트' 시리즈는 출시 1주일 만에 완판되었으며, 1탄의 인기로 힘입어 8월 출시한 '롯데제과×흔한남매 영상제작놀이 패키지 과자선물세트' 2탄도 모든 물량이 판매됐다.

유튜버의 긍정적인 리뷰 및 협업이 식품 기업의 매출을 올려주는 기회를 가져온 만큼 반대로 위기도 불러왔다. 부정적인 리뷰의 경우 매출 감소는 물론, 폐업위기에까지 야기할 수 있다.

리뷰 유튜버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간장게장집에서 리필했던 게장에서 밥알이 나왔다며 '음식 재탕'을 주장했다. 하지만 CCTV 확인 결과 밥알이

본인이 식사할 때 들어간 것으로 판명됐다. A씨는 해명 영상 촬영을 위해 다시 식당을 방문했을 당시 피해를 입은 식당은 폐업을 결정한 상태였다. 해명이 이뤄진 후에야 해당 식당은 다시 매장을 운영할 수 있었다.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식당 영상을 촬영하거나 제품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 및 허위내용을 전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유튜버 B씨는 지난해 6월 말 유튜브 방송의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유명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체가 다른 사람이 먹던 음식을 배달해 준 것처럼 꾸며 이를 방송에 내보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다는 해당 업체의 항의를 받고 사흘 뒤 B씨가 올린 조작 방송에 대한 사과 영상은 700만회의 조회 수를 기록, 지난해 국내 최대 조회수 유튜브 영상 10위 안에 들었다.

B씨는 등 2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업계 관계자는 "뒷광고 논란 이후 한동안 유튜버들이 리뷰 및 영상제작에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이내 문제가 발생해도 본인들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실제로 웬만한 연예인들보다 영향력이 크다. 이들이 지닌 큰 영향력에 맞는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프레스지가 130만 명 구독자 유튜버 '박막레 할머니'의 손맛을 구현한 비빔국수 밀키트 2종을 출시했다. /프레스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정 최고 금리 연 24% → 20% 인하

200만명 이자 경감 vs 대출난민 대거 양산

<정부>

<대부업계>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떨어지면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2016년 3월 27.9%에서 2018년 24%로 인화된 뒤 3년 만에 4% 포인트 인하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 3월 말 기준 20%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던 239만명 중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계는 기존 거래 고객에게도 금리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지만 대부업계는 수익성 악화 우려로 소급 적용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특히 대부업계의 신규대출 공급마저 줄고 있어 '대출난민'이 대거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형 대부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지난해 말 차주 수는 72만명, 신규대출은 1조308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말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반면 담보대출 비중은 2018년 말 32.2%에서 지난해 말 49.3%로 17.1%

포인트 늘었다. 업계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신규 대출공급은 줄고 담보물 요구는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대부업계에서 상위사로 꼽히는 산와머니와 조이크레디트대부는 이미 신규대출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웰컴크레디트대부는 오는 2024년 철수할 예정이다. 업계 3위 리드코프는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렸다.

2018년 이후 3년 만에 4%p 인하 정부, 매년 4830억 이자경감 추산 대부업계 "대출문턱 높아져 사채 늘 것"

당초 금융당국은 제도권에서 벗어난 저신용자 약 3만9000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지만 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미 2018년도 금리인하로 업계 수익이 반토막 난 상황"이라며 "대출난민은 정부 추산치인 4만 여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대출이 어려워진 형국을 노려 불법 사금융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불법대부광고는 총 29만 8937건으로 2019년 대비 2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출범하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하는 동시에 불법 사금융업자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신용자 뿐만 아니라 급전이 필요한 단기 사용자마저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으로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인 대부업계의 문턱에서 좌절된 저신용차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쏠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여전업권이 저신용차주를 흡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기존대출연장이나 신규대출이 어려운 경우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등 정책상품 이용을 문외할 것을 권했다.

/권소원 기자 think@

한진중 1만4500톤급 수송함 '마라도함' 인도

길이 199m, 폭 31m, 최대속력 23노트



마라도함

한진중공업이 해군의 두 번째 대형수송함인 '마라도함'(1만4500톤급)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는 등 해군이 보유한 대형 수송함 2척을 모두 건조해 기술력을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지난달 24일 부산영도조선소에서 방위사업청과 해군, 조선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라도함의 인도 서명식을 가졌다. 해군은 같은달 28일 진해기지에서 마라도함 취역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해군 함정이 됐음을 선포했다.

마라도함은 길이 199m, 폭 31m이며, 최대속력은 23노트(시속 42.5km)를 자랑한다. 승조원은 300여 명 규모다. 승조원 외에도 700여 명의 병력과 함께 전차, 장갑차, 차량 등을 수송할 수 있으며, 헬기와 공기부양정 2대도 탑재할 수 있다.

상륙작전을 위한 병력과 장비수송을 기본임무로 하는 해상 및 상륙 기동부대의 기함(지휘함)인 마라도함은 전력화 훈련을 통한 작전수행능력평가를 거친 이후 10월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재해·재난 시 작전지휘, 유사시 재외국민 철수, 국제평화 유지 활동 등의 임무도 수행한다.

한진중공업은 1972년 국내 최초의 국산경비정 건조를 시작으로 1974년 국내 방위산업체 1호로 지정된 이래로 50여

년 동안 대형수송함(LPH)을 비롯해 고속상륙정(LSF)과 차기 고속정(PKX) 등 최첨단 함정의 100% 자체설계부터 건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함정 건조 조선소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상륙함 분야의 독보적인 함정 건조업체로 알려져 있지만 해군의 다목적 훈련지원정과 해양경찰의 3000t 경비구난함 등 각종 지원함과 경비함 분야에서도 다양한 함정을 건조하며 1000여 척이 넘는 국내 최대 함정 건조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마라도함은 해군의 해양보국 의지와 우리 국민들의 자주국방 의지가 한진중공업의 조선 기술력을 통해 표출된 또 하나의 결실이다"며 "국내 대형수송함 2척 모두를 건조하는 영광스런 임무를 수행한 데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전 임직원이 최첨단 함정을 완벽히 건조함으로써 국가 해상방위력 증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원 기자 ysw@